

2016 SJE International Symposium



2016년 6월 22일과 23일,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에서 경제연구소, 경제학부 BK21플러스 사업단, 분배정의연구센터의 공동 주최로 '제24회 SJE International Symposium'이 개최되었다. '인적자본과 경제발전'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국제 심포지엄은 저명한 학자들의 연구 소개와 연구자들 간의 소통을 목표로 이틀간 진행되었고, 15개의 연구 발표와 토론이 이뤄졌다.

본 학술행사는 서울대 홍기현 교수와 이근 교수, 경희대 손혁상 교수의 개회사로 시작되었다. 이어서 첫 번째 세션에서는 브라운대 Andrew Foster 교수가 'Economic Mobility in Rural South Asia Over 40 Years'에 대해, 코넬대 김현철 교수가 'When Student Incentives Don't Work: Evidence from a Field Experiment in Malawi'에 대해, 그리고 연세대 한유진 교수가 'Do Friends Improve Female Education? The Case of Bangladesh'에 대해 발표를 하였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홍콩대 Albert Park 교수가 'Intergenerational Mobility Pathways: Evidence from a Long Panel from Rural China'에 대한 발표를 하였고, 싱가포르 국립대 Nina Guyon 교수가 'Aspirations and the Perpetuation of Social Inequalities: Evidence from Academic Paths in France'라는 연구를 발표하였다.

세 번째 세션에서는 KDI 국제정책대학원 김부열 교수가 'Peer Effects in the Demand for Male Circumcision: Evidence from Secondary Schools in Malawi', 서울대 홍석철 교수가 'Shortened Lifespan: A Legacy of Exposure to Malaria Risk in Early Life', 그리고 대만대 Ming-Jen Lin 교수가 'Can Partisan News Shift Political Preference and Voting Behavior? An Experimental Evidence from Taiwan's General Elections 2016'라는 연구를 각각 발표하였다.

첫날 마지막 세션에서는 도쿄대 Yasuyuki Sawada 교수가 'DVD-based Distance-Learning Program for University Entrance

Exams: RCT Experiments in Rural Bangladesh'에 대해 발표하였고, 히토츠바시대 Mari Tanaka 교수가 'Exporting Sweatshops? Evidence from Myanmar'에 대한 연구를 발표하였다.

행사 두 번째 날인 23일에는 두 개의 세션이 진행되었다. 첫 세션에서는 런던컬리지대 Imran Rasul 교수가 'The Returns to Training in a Low-Income Country: Evidence from a Field Experiment and Structural Model', 서울대 이정민 교수가 'Does Exposure Reduce Gender Bias in Politics?', 그리고 싱가포르 매니지먼트대의 김성훈 교수가 'Selection and Incentive Effects of Financial and Career Incentives on Labor Productivity: Evidence from a Field Experiment in Malawi'라는 연구를 발표하였다.

그리고 이번 학술대회 마지막 세션에서는 미시건주립대 Prabhat Barnwal 교수가 'Curbing Leakage in Public Programs with Direct Benefit Transfers: Evidence from India's Fuel Subsidies and Black Markets'에 대한 연구를 발표하였고, 이후 서울대 최승주 교수의 'The Deficiency of Competitiveness: Experimental Evidence from Three Korean Groups'라는 연구 발표를 끝으로 SJE 국제 심포지엄이 막을 내렸다.

특히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이전과 달리 첫날인 22일에 포스터세션이 진행되었다. 이를 통해 '인적자본과 경제발전'에 관한 주제로 연구를 진행 중인 대학원생들이 포스터를 통해 자신들의 연구를 발표하고, 학회 참석자들과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 그리고 심포지엄에서 발표된 논문들은 예년과 같이 향후 SJE의 특별판에 실려 국내외에 배포될 예정이다. 본 심포지엄은 SJE의 SSCI 등재를 추진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저널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이며, 아시아 경제성장과 관련 분야 국내외 연구자들에게 유익한 연구 자료가 될 것이다.

학부장 임기를 시작하며



류근관 교수

서울대학교 상과대학, 경제학과, 무역학과, 국제경제학과, 경제학부 동문 선·후배 여러분, 그리고 경제학부 재학생 학부모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6년 7월 16일부터 2년간 경제학부장직을 맡게 된 류근관입니다. 저는 1979년 서울대학교에 들어 온 이후 1986년부터 1995년 사이 미국에서의 4년간의 유학생생활과 이어진 5년간의 교수생활을 제외하면 제 삶의 대부분을 서울대학교 경제학부에 신세지며 보내고 있습니다. 그간 계량경제학 이론을 전공하였고 현재는 금융 및 기업 미시 자료를 이용한 실증분석을 병행하며 연구/강의 및 학생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경제학부에는 38명의 교수진과 약 1,400여명의 학부생 및 대학원생이 재학하고 있습니다. 우리 경제학부는 웬만한 타 단과대학보다 큰 규모입니다. 현 교수진의 연구 실적은 세계 최고 수준으로 경제학부 사상 역대 최고의 연구업적을 내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언제나 국내 최정상 수준의 유지해왔고 최근에는 법과대학 학부 폐지 이후 신설된 자유전공학부에 소속된 학생들이 압도적으로 많이 선택하는 전공이 되었습니다. 사회과학대학에서 경제학부로 진입하려는 학생, 경제학 복수전공을 신청하는 학생, 경제학부로의 전과를 신청하는 학생은 매년 넘쳐나고 있어 이들 중 일정 수를 경쟁을 통해 선발할 수밖에 없는데 커트라인이 학점 4.0 근처에서 형성될 정도로 경제학에 대한 학내의 수요는 사상 최고 수준입니다.

세계적 경쟁력을 갖춘 젊고 유능한 경제학자가 모교 교수로 부임하는 것은 마치 바다로 나간 연어가 고향으로 회귀하는 것과 유사합니다. 고국이라는 이유로 모교라는 이유만으로 특별한 대가 없이 돌아옵니다. 최근 경제학부에 부임하는 교수들은 국제적으로 명성이 높은 대학에서 교수로 몇 년씩 재직하다가 모교로 부임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보수만 보면 절반 이상의 임금 하락을 감내하며 모교 경제학부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이들이 서울대로 부임하게 되면 더 많은 강의 부담, 멀어지는 주택 마련, 힘들어지는 자녀 교육 등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에 처하게 됩니다. 급기야 지난해에는 한 명의 교수가 서울대학교 경제학부를 사직하고 미국의 컬럼비아대학교 경제학 교수로 되돌아가기도 했습니다. 물론 저희 학부는 언젠가 다시 그 교수가 모교로 재회귀할 거라는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있습니다.

그간 경제학부는 세계적 연구실적을 내는 것에 비해 각종 경제문제에 대해서는 그에 걸맞은 의견을 내지 못한다는 동문 여러분을 비롯한 사회 각계각층의 지적을 받아 왔습니다. 성장률 저하의 문제, 빈부 격차 심화 문제,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공정 경쟁의 문제, 국제 경제 불안, 세대 간 부의 대물림 문제 등 우리 경제는 수많은 난제에 부딪혀 있습니다. 현 교수진은 이러한 제반 경제문제에 대해서도 다양한 루트를 통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존처럼 개인적인 의견 개진은 물론 경제학부와 경제연구소가 공동으로 주관하는 정례 학술 심포지엄, 정책 심포지엄 등을 통해서 국내외 경제문제에 대해서 보다 적극적으로 경제학부의 목소리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경제학부는 새로운 발전을 모색하는 단계에 와 있습니다. 국내 타 대학의 경우 연·고대는 물론 서강대 등이 경제학과 자체 건물을 지어 경제학 공동체의 교육/연구/소통의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면에서 보면 서울대학교 경제학부는 그간 내실은 기해 왔지만 사회과학대학의 틀 내에 갇혀 외적 성장은 정체되어 있었습니다. 이는 서울대학교 상과대학의 다른 한 축이었던 경영학과가 경영대학으로 독립한 뒤 이룩한 외적 성장과 크게 대비됩니다. 경제학부의 백년대계를 위해서는 내실에 걸맞은 외연 확장이 절실한 시점이고 이는 경제학부의 지난 몇 십 년에 걸친 숙원 사업이기도 합니다. 현재 경제학부 독자 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상당한 노력과 진전이 이루어지고 있고 아직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단계는 아니지만 몇몇 동문 여러분의 적극적인 후원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6개월마다 간행되는 경제학부 소식지를 통하여 매번 동문 여러분께 경제학부의 현황 및 발전 방향에 대해, 그리고 구체적으로 신축 경제학부 건물의 진행상황에 대해 알려드리고 동문 여러분의 광범위한 격려와 협조도 감히 부탁드립니다.

내년 3월이면 경제학부 출신으로 미국의 칼텍(Caltech) 교수를 거쳐 모교에서 연구와 교육에 전력하다 출지에 작고한故 김태성 교수의 20주기가 됩니다.故 김태성 교수는 작고 당시 세계 최고 수준의 경제학 논문을 여러 편 발표 또는 준비 중이었습니다. 당시 후배인 제게, “류교수, 우리 정신 차려야지 큰 일 났어”라 말하며 늘 연구 자세를 가다듬고 독려하던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당시 김태성 교수의 강의를 듣거나 지도를 받은 학부생, 대학원생 중 여럿이 어느덧 세계적인 경제학자가 되었고, 그 중에서도 특히 우수한 일부 제자들이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진으로 부임하였습니다. 내년 3월이면 이들 제자/후배 교수들이 주축이 되어故 김태성 교수를 기리기 위한 세계적인 경제학 학술대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故 김태성 교수 사망 이후 부친께서 5억 원을 “김태성 장학기금”으로 출연하여 주셨고, 저희 학부는 이 기금의 수익금을 지난 20년간 장학금, 논문연구상, 세미나 운영 등으로 아주 유익하게 사용해 왔습니다. 한국계량경제학회도 국내 최고 유망한 젊은 경제학자에게 매년 김태성 학술상을 수여해 오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 학부는 이자율 하락 등으로 인해 20년 전 5억 원의 수익금으로 할 수 있던 사업을 지속적으로 유지/발전시키기는 데 있어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부족한 금액을 보충하기 위해 이른바 정부 BK 사업의 연구비와 결합하여 김태성 기념 장학 및 학술 사업을 지속해 오고 있으나 정부 예산의 가변성과 불확실성을 생각하면 이 또한 궁극적인 해결책이 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내년 20주기를 계기로 김태성 기금 자체를 확충해 나가야 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경제학부에 대한 동문 여러분의 지원과 격려는 나날이 증가하고 있어 학부 교직원과 학생 일동은 늘 감사의 마음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경제학부 81학번 동문들이 졸업 30주년을 기념하여 경제학부에 학술기금으로 1억 원의 발전기금을 출연해 주셨습니다. 이 기회를 빌려 다시 한 번 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동문 및 학부모 여러분의 물심양면 지원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저는 학부장으로서는 경제학부의 발전을 위해 앞으로 2년간 최선을 다해 땀을 감히 약속드립니다. 그제 제 평생 경제학부에 진 빚을

(03면에서 계속됩니다.)

경제학부 학술행사

복지와 경제성장: 한국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 방향을 찾아서



2016년 2월 26일, 밀레니엄 서울힐튼 코랄룸에서 한국재정학회와 서울대 경제연구소 분배정의연구센터의 공동 주최로 '복지와 경제성장 정책 세미나'가 개최되었다. 이번 세미나는 한국이 직면한 저성장의 위기와 복지정책을 둘러싼 어려운 문제에 대하여 각계의 전문가들이 모여서 자유롭고 합리적인 소통과 토론을 하고, 그것을 사회와 공유한다는 취지로 마련되었다.

본 세미나는 김정훈 한국재정학회장과 주병기 서울대 분배정의연구센터 대표의 개회사로 시작되었고, '한국경

제의 지속가능한 발전방향을 찾아서'라는 큰 틀에서 기조연설, 주제발표, 그리고 종합토론이 이뤄졌다.

기조연설을 맡은 조순 서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복지증대와 지속성장의 조건'을 주제로 연설을 하였다. 그는 연설을 통해 사람을 경시하고

성장률에 연연하는 경제정책을 비판하였다. 그리고 유일한 자원인 사람을 잘 개발하지 못하고 있어 경제나 정치 등이 잘 안 되고 있음을 지적하며, "아이를 잘 낳게 하고, 소년을 가정과 학교에서 잘 가르치고, 청년을 적재적소에 고용하고, 노인을 즐겁게 해주면 경제는 자연히 잘 된다"고 강조했다.

기조연설에 이어 세분의 주제발표가 이어졌다. 서울대 이근 교수는 '한국경제의 성장과 지속가능한 발전', 고려대 김우찬 교수는 '재벌과 시장경제', 그리고 고려대 이우진 교수는 '한국경제의 분배구조와 복지'에 관해 발표하였다. 이근 교수는 발표를 통해 소득주도성장을 위해서는 기업 배당에 의한 것이 아니라 투자에 따른 고용 창출과 임금지급이 주요한 성장 동력이 되어야함을 언급하며, "환율 절상을 용인해 실질 임금을 인상하고 물가 안정 효과로 내수 진작을 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발표 이후에는 서울시립대 김우철 교수, 고려대 김원섭 교수와 이종화 교수, 홍익대 박원암 교수와 전성인 교수로 구성된 패널의 종합 토론이 이어졌다. 국민연금의 의결권 강화 문제, 복지정책의 문제점, 지속적인 성장 방안 등에 대한 토론이 이루어졌고, 이를 끝으로 본 세미나가 마무리되었다.

SUMMER SCHOOL ON GAME THEORY

SUMMER SCHOOL ON GAME THEORY	
■ 주최 : 분배정의연구센터	
■ 장소 : 서울대학교 아시아센터 101동 512호	
■ 일시 : 2016년 7월 5일(화) ~ 6일(수) 13:30 ~ 16:15	
■ 일정 :	
7월 5일(화) 13:30 ~ 16:15	
13:30~14:45	Strategy-proofness in the queueing problem (Suresh Mutuswami, University of Leicester) Break(14:45~15:00)
15:00~16:15	Dynamic queueing problems (Manipushpak Mitra, Indian Statistical Institute)
7월 6일(수) 13:30 ~ 16:15	
13:30~14:45	Queueing with an initial order (Suresh Mutuswami, University of Leicester) Break(14:45~15:00)
15:00~16:15	Static queueing/sequencing problems (Manipushpak Mitra, Indian Statistical Institute)
* 이번 강연은 한국사회과학연구지원사업(NRF-2013S1A3A2055391)에 의해 지원됩니다.	

2016년 7월 5일과 6일, 서울대학교 아시아센터에서 서울대 경제연구소 분배정의연구센터의 주최로 'SUMMER SCHOOL ON GAME THEORY'가 개최되었다. 특히 이번 행사에서는 '대기이론(Queueing Theory)'의 최근 연구 동향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경제 내에서 생산 활동 또는 용역을 제공받을 때, 대기하는 시간은 어디까지나 낭비적인 요소이다. 대기 시간으로 인해 발생하는 전체 비용을 최소

화하면서도, 경제주체들에게 공정한 수준의 효용을 제공할 수 있는 메커니즘을 연구하는 이론이 대기이론이다.

이번 행사에는 저명한 학자 두 분이 초청되었다. 레스터대학교의 Suresh Mutuswami 교수는 5일에 'Strategy-proofness in the queueing problem'에 대해, 6일에 'Queueing with an initial order'에 대해 발표를 하였다. 그리고 Indian Statistical Institute의 Manipushpak Mitra 교수는 5일에 'Dynamic queueing problems'에 대해, 6일에 'Static queueing/sequencing problems'에 대해 발표를 하였다. 이번 SUMMER SCHOOL에 참여한 학생들은 두 학자의 발표를 통해 대기이론의 최신 연구에 대해 배울 수 있었다.

(02면에서 이어집니다.)

조금이라도 값는 일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근 고등학생 학부모께 물어보았습니다. "서울대학교 경제학부에 들어오기가 어렵냐"고....., "하늘의 별따기 보다 어렵다"고 합니다. 수업시간에 학생들에게 질문 하며 말합니다. "경제학부생 여러분이 답하지 못하면 대한민국이 답하지 못한다"고....., 저희는 국내 최고 인재를 가르쳐야 한다는 사명감과 산적한 국내외 경제문제에 대해 일조해야 한다는 책임감으로 경제학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동문 여러분의 많은 질책과 함께 큰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경제학부장 류근관 드림

〈학력 및 주요 경력〉

-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1983)
- 미국 스탠포드대학교 경제학 박사 (1990)
- 미국 UCLA 대학교 경제학과 조교수 (1990~1995)
-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조교수, 부교수, 교수 (1995~현재)
- 미국 스탠포드대학교 경제학과 방문 조교수, 부교수, 교수
- 한국응용경제학회 회장
- 한국경제학회, 한국금융학회 감사

교수수상 및 동정

전영섭 교수, 근정포장 수상



전영섭 교수가 2016년 4월 21일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에서 개최된 '제49회 과학의 날·제61회 정보통신의 날 기념식'에서 정보통신 진흥 부문 근정포장을 수상했다. 방송시장경쟁상황평가위원 등을 역임한 전영섭 교수는 방송통신융합 정책에 대한 다양한 연구로 정보통신기술(ICT) 정책을 지원했다.

김소영 교수, 제46회 매경이코노미스트상 수상



김소영 교수가 2016년 4월 5일에 '제46회 매경이코노미스트상'을 수상하였다. 매경이코노미스트상은 1971년 처음 제정돼 올해로 46회이다. 이 상은 국내 최고의 경제·경영학자를 대상으로 한 학술상으로, 학문적 성과뿐만 아니라 현실 정책 수립에 영향을 미친 학자에게 주는 국내 최고 권위의 상으로 평가받고 있다. 김소영 교수는 미국, 독일 등 18개국을 대상으로 '국가별 특성과 정부 지출 충격이 경상수지와 실질환율에 미치는 영향(Country characteristics and the effects of government consumption shocks on the current account and real exchange rate)'이라는 논문을 SSCI급 최우수 학술지인 '국제경제학 저널(Journal of International Economics)'에 게재하였다. 이 논문에서 김소영 교수는 '정부가 재정 지출을 늘리면, 통화 가치 절상과 경상수지 악화로 이어진다'는 종전의 경제학계 통념을 깨고, 이론이 현실과 다르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특히 심사위원단은 정부 지출의 증가가 변동환율제하에서 실질환율의 평가절하를 가져온다는 사실을 실증 분석한 점을 높이 평가했다.

이지홍 교수, 청람상 수상



이지홍 교수가 2016년 2월 17일에 개최된 2015년도 한국경제학회 정기총회에서 한국경제학회 청람상을 수상하였다. 이지홍 교수는 미시경제학 게임이론 분야에서 연구를 해왔고, 이 연구들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청람상은 한국경제학회가 우리나라 경제학의 발전을 촉진하고, 신진 경제학자의 연구의욕을 고취하기 위하여 1983년도에 제정한 상이다. 한국경제학회는 1983년에 첫 번째 수상자를 배출하였고, 이지홍 교수는 서른 세 번째 수상자가 되었다.

김대일 교수, 홍조근정훈장 수상



김대일 교수는 2015년부터 정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민간간사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정부의 저출산 대응 정책 방향을 제시한 공로를 인정받아 제5회 인구의 날 기념식에서 홍조근정훈장을 받았다. 이 기념식은 2016년 7월 11일 서울 강남대로 aT센터에서 개최되었고, 저출산 극복에 기여한 기관·개인에게 대통령 표창(8명), 국무총리표창(11명), 장관표창(39명) 등이 수여되었다.

안동현 교수, 자본시장연구원 원장 취임



안동현 교수가 2016년 4월 19일 자본시장연구원 선임 원장으로 선임되어, 2019년 4월 20일까지 연구원 원장직을 수행한다. 안동현 교수는 고려대 경영학과와 동 대학원을 졸업하였으며, 미국 뉴욕대학교(New York University)에서 경영학 박사학위 취득 후, 노스캐롤라이나대학교 경영대학 부교수를 거쳐 본교 경제학부에 재직하고 있다. 현재 국민경제자문위원회, 금융발전심의회위원회, 공적자금관리위원회 등의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금융 및 자본시장 분야의 전문가이다.

홍기현 교수, 사회과학대학 학장 겸보



홍기현 교수가 2016년 3월 23일부터 2018년 3월 22일까지 사회과학대학 학장직을 겸보한다. 홍기현 교수는 1987년에 미국 하버드대학교(Harvard University)에서 박사 학위를 받고 1989년에 경제학부 교수로 부임하였으며 주요 연구 분야는 경제학설사이다.

이철인 교수, 사회과학대학 학생부학장 겸보



이철인 교수가 2016년 3월 26일부터 2018년 3월 25일까지 사회과학대학 학생부학장직을 겸보한다. 이철인 교수는 1996년에 미국 미시간대학교(University of Michigan)에서 박사 학위를 받고 2009년에 경제학부 교수로 부임하였으며 주요 연구 분야는 노동경제학이다.

류근관 교수, 경제학부장 겸보



지난 2년간 경제학부장직을 수행한 김재영 교수에 이어, 류근관 교수가 2016년 7월 16일부터 2018년 7월 15일까지 경제학부장직을 겸보한다. 류근관 교수는 1990년에 미국 스탠포드대학교(Stanford University)에서 박사 학위를 받고 미국 UCLA대학 경제학과 교수직을 거쳐 1995년에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로 부임하였으며 주요 연구 분야는 계량경제학이다.

교수 신간 안내

중부 유럽 경제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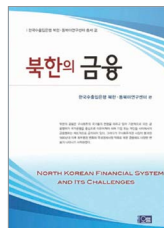
: 서양 문명의 변형에서 떠오르는 경제의 심장으로



양동훈, 김영란 지음
미지북스(2016년 2월 29일 출간)

중부 유럽은 어떻게 태어나고 발전했는가? 우리가 유럽하면 떠올리는 이미지는 거의 대부분이 서유럽이다. 그러나 지금의 독일, 오스트리아, 체코, 헝가리, 폴란드 등은 '중부 유럽'으로 구분되는 지역으로 서유럽과는 역사적, 문화적으로 다른 기원과 정체성을 갖는 또 하나의 유럽이다. 중부 유럽은 중세 말 이래 서유럽의 팽창과 함께 역사 무대에 들어왔고, 서유럽의 영향을 받으면서도 점차 독자적인 경제 세력으로 발전하기에 이르렀다. 근대에 들어서서 중부 유럽은 제국들의 본산이자 혁명과 전쟁의 무대였으며, 산업혁명과 대공황, 냉전의 성립과 해체, 유럽연합 결성 등 근현대사의 주요 장면을 장식했다. 오늘날 중부 유럽은 독일을 중심으로 유럽 경제의 새로운 심장으로 떠오르고 있다. 경제사의 권위자인 양동훈 서울대 교수가 서양사 전공자인 김영란 선생과 함께 쓴 이 책은, 역동적인 중부 유럽의 1000년 역사와 경제를 큰 시야로 조망하며, 대중적인 언어로 쉽고 재미있게 소개한다.

북한의 금융



한국수출입은행, 북한 동북아연구센터 지음
(김병연 교수 참여)
오름(2016년 6월 25일 출간)

이 연구보고서는 북한의 대내 금융, 북한의 대외 금융, 그리고 북한의 금융개혁 등 세 부분으로 구성된다. 이를 통해 현재 북한에서 진행되고 있는 달러라이제이션과 사금융 등 주요 금융현상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향후 북한 금융체제의 변화 가능성과 방향을 엿보고 우리의 준비과제를 점검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체제전환국의 금융개혁 사례에서 보듯이, 금융제도의 개선은 개발협력의 효과성을 높이고 체제전환의 속도를 높일 수 있는 핵심 요소이다. 그러므로 북한의 경우에도 체제전환 초기부터 추진되어야 하는 금융제도의 개선 방향과 과제를 사전에 검토하고 준비할 필요가 있다. 그것이 준비되어야만 북한을 상대로 하는 국제 개발협력의 효과적으로 전개될 수 있는 것이다.

신임 이정민 교수 인사말



이정민 교수

안녕하세요. 저는 2016년 1학기에 경제학부에 부임한 이정민 교수입니다. 제 연구분야는 노동경제학과 응용미시경제학입니다. 경제학 이론의 관점에서 데이터를 계량경제학적 방법으로 분석하고 결과를 해석하는 실증연구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경제학자들이 실증연구에서 관심을 가지는 것은 기본적으로 두 변수 간의 인과성(causality)이라고 할 수 있고 그 동안 제가 해 온 연구도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기 위해 경제적 변수들 사이의 인과적 관계를 추정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실증분석에서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방법 중 하나가 회귀분석(regression analysis)인데, 연구자가 회귀분석에서 알고자 하는 것은 하나의 변수(설명변수)가 다른 변수(종속변수)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즉 인과적 효과(causal effect)에 있습니다. 컴퓨터와 통계소프트웨어의 발전으로 회귀분석은 이제 학부에서 통계학 수업을 들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할 수 있을 정도로 쉬워졌고, 분석을 할 수 있는 데이터도 정말 여기저기 널려있다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넘쳐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수백만 개의 관측치를 포함하는 데이터를 가지고 있고 성능 좋은 컴퓨터에 최고의 통계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더라도 두 변수 사이의 인과성을 밝히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노동경제학의 대표적인 주제 중의 하나인 직업훈련의 효과를 하나의 예로 생각해 봅시다. 직업훈련은 재직자나 실업자에게 교육 및 재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훈련참여자의 생산성을 높이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목적을 어느 정도로 달성하고 있는지를 실증적으로 알기 위해서 직업훈련에 참여했는지 여부를 설명변수로, 임금이나 취업률과 같이 근로자의 생산성을 보여주는 변수를 종속변수로 하는 회귀분석을 수행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리고 회귀분석 결과 직업훈련을 받은 근로자가 참여하지 않은 근로자에 비해 임금이 10% 높다는 것을 찾아냈다고 상정해 봅시다. 그런데 거의 모든 경제학자들은 이렇게 회귀분석으로 추정된 10%의 임금상승을 직업훈련의 효과라고 생각하지 않을 것입니다.

문제의 핵심은 대부분의 경우 직업훈련에 참여할 것인지 미참여할 것인지는 근로자 개인의 결정이라는 점입니다. 근로자는 프로그램 참여의 비용(cost)과 편익(benefit)을 비교하여, 경제학에서 말하는 이른바 합리적 의사결정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근로자에게 훈련 프로그램의 편익이란 다름이 아니라 프로그램 참여 이후의 임금 증가이니 임금이 많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는 근로자들이 프로그램에 참여했을 것이고, 따라서 참여자의 임금이 미참여자의 임금보다 높은 것은 결국 당연한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생각을 해보는 것은 결코 사변적인 논리 놀음이 아닙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직업능력개발훈련이라는 이름으로 300만 명 이상을 대상으로 1조원이 넘는 예산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적지 않은 예산이 투입되는 직업훈련 프로그램의 효과가 어느 정도인지, 현재 프로그램이 가장 효율적인 방법인지를 알아내는 것은 정책 수립에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경제학 실증연구에서 인과적 효과를 추정하기 위해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방법 중 하나는 자연실험(natural experiment)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위의 직업훈련의 예를 계속 이용해서 설명하자면 정부가 직업훈련 프

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요건을 변경했다고 생각해 봅시다. 이 경우 변경 이전에는 참여를 할 수 없었는데, 변경 이후에는 참여를 할 수 있게 된 근로자가 나타날 것입니다. 이렇게 자기의 선택(self selection)이 아닌 정책 변화라는 외생적인 요인에 의해 참여 여부가 바뀌게 된 자연실험적 상황을 이용하여 인과적 효과를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 동안 제가 해왔던 연구 중 많은 것들이 이렇게 자연실험적 상황을 이용하여 인과적 효과를 찾아내는 것이었습니다. 주5일 근무제의 도입을 이용하여 근로시간 단축이 가계생산, 여가 등 가구 내의 생활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노동시장에서 고용이나 산업재해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해 보았고, 또 다른 연구에서는 첫 번째 아이의 성별에 따라 자녀의 수가 달라지는 점에 착안하여 자녀의 수가 교육투자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도 했습니다. 최근에는 적극적으로 실제의 경제생활 환경에 개입하여 인과적 효과를 추정하기 위한 실험을 수행하는 현장실험(field experiment) 방법이나 좀 더 완벽하게 통제된 환경 하에서 인과성을 찾아내기 위한 실험실 실험(laboratory experiment) 방법을 이용한 연구도 수행한 바 있습니다.

인과적 효과를 추정하는 일은 경제학자가 비교우위를 가지고 있는 작업입니다. 다른 사회과학 분야와 달리 경제학은 인간의 행동과 의사결정에 대한 준거적인 모형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학문 분야 가운데 유독 경제학에서 인과적 효과를 추정하기 위한 통계적 기법이 발전해 온 것도 이러한 이론적 바탕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미시경제적 이론에 바탕을 두고 계량경제학적 방법으로 무장한 경제학자가 다른 학문분야의 학자들보다 잘 할 수 있는 것 중 하나가 정책평가입니다. 정책의 효과를 정확히 평가하기 위해서는 단순상관성과 인과성을 구분하는 것이 핵심적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유에서 경제학을 정책 학문이라고 부르고 실제로 많은 경제학 논문에서 정책적 함의(policy implication)를 도출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서울대학교 경제학부의 역사를 보더라도 경제학이 정책의 학문이라는 말이 실감이 납니다. 수많은 경제학부 선배들이 우리나라의 유례없는 경제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해왔다고 자부합니다. 좀 식상한 표현이지만, 지금 우리나라의 경제는 초고속 경제성장, 그리고 IMF 위기 이후 새로운 단계로 나가는 시점에 있는 것 같습니다. 고용창출력 저하, 소득불평등 심화 등 사회경제적 문제가 피루로 느껴진지 벌써 오래되었지만 안타깝게도 해결책은 그 누구에게도 뚜렷이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경제학부 졸업생과 재학생의 어깨가 그 어느 때보다도 무거운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의 미래를 책임질 차세대 리더들을 가르치고 함께 공부할 수 있게 되어 영광이고 앞으로 기대가 큼니다.

〈학력 및 주요 경력〉

- 서울대학교 경제학 학사 (1996)
- 서울대학교 경제학 석사 (1998)
- The University of Texas at Austin 경제학 박사 (2004)
- Research Affiliate, the Institute of the Study of Labor (2004–2005)
- The University of Arkansas at Fayetteville 조교수 (2004–2007)
- Florida International University 조교수 (2007–2010)
- 서강대학교 부교수 (2010–2016)
- Research Fellow, the Institute of the Study of Labor (2006–현재)
-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2016–현재)

신임 홍석철 교수 인사말



홍석철 교수

안녕하세요. 지난 3월 경제학부에 부임한 홍석철 교수입니다. 제가 대학에 입학했던 1992년은 학회 전성기였습니다. 학과활동은 학회를 중심으로 움직였고, 신입생들은 경제학과에 있었던 10여 개 학회 중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 전통이었습니다. 저도 맘에 드는 선배들을 따라 '전진'이라는 역사연구 학회에 가입했는데, 이때부터 우연히 역사에 대한 관심이 시작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학회 첫 모임에서 읽었던 책이 E.H. Carr의 '역사란 무엇인가'였습니다. 선배들이 강조했던 덕분인지 '역사는 현재와 과거의 끊임없는 대화'라는 유명한 문구를 여전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로 지금까지의 여정은 그 말의 의미를 찾는 과정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 전공분야는 서양경제사입니다. 경제사는 과거의 경제현상을 연구하는 경제학의 한 분야입니다. 경제현상은 미시적인 주제부터 거시적인 주제까지 무척 다양하기 때문에, 보통 경제사학자들은 주력 연구분야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 연구관심은 인류 생활수준의 발전 과정을 장기적인 관점에서 살펴보는 것입니다. 특히 인류 발전의 다양한 요인과 결과 중에서 질병, 건강, 신장(키), 인구, 환경, 교육 등에 연구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주요 연구 시기와 국가는 18-20세기 미국과 영국입니다.

경제사학과 역사학의 차이는 연구 주제의 차이만은 아닙니다. 경제사학은 경제학 이론을 토대로 역사적인 현상을 합리적으로 설명하며, 사료의 계량적인 분석을 위해 과학적인 방법과 통계적인 기법을 활용하는 특징을 지닙니다. 이런 특징을 가진 경제사 분야는 수량경제사(Cliometrics)라 불리며, 1950년대 이후 등장하여 현재는 주요 분야로 확고히 자리매김하였습니다.

2013년 타계한 경제사학자 Robert Fogel 교수는 수량경제사 분야를 개척한 업적으로, Douglas North 교수와 함께 1993년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하였습니다. 2002년에 시카고대학 박사과정에 진학한 저는, 2004년부터 10년 간 Fogel 교수의 지도를 받았고 함께 공동연구를 하였습니다. 그 영향으로 제 연구는 수량경제사 방법론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제사 연구에서 중요한 것은 연구주제와 관련 있는 다양한 시대 상황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시대상의 충분한 이해가 뒷받침되지 않는 정량분석결과는 허울에 불과할 것입니다. 수량경제사를 개척한 Fogel 교수는 수량적인 방법론에만 치중하는 것을 경계하였으며, 역사 인식에서 당시의 경제, 정치, 종교, 철학, 과학 간의 복합적인 상호작용을 중시하였습니다. 저는 이 점이 경제사가 갖는 매력이자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경제사의 또 다른 장점은 미래 예측력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경제학을 포함한 대부분 과학의 목표는 불확실한 미래를 예측하는 것입니다. 자연과학은 자연법칙을 밝히고 그 법칙에 근거하여 미래의 자연현상을 예측합니다. 반면 사회현상은 수많은 요인들의 복잡한 상호작용의 결과로 나타나기 때문에, 사회현상을 연구하는 사회과학에서 자연법칙과 같은 절대적인 원리를 찾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러므로 경제학은 과거 경험을 모형과 실증으로 검토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미래를 예측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미래 예측력은 인류의 경험을 얼마나 긴 시간척도에서 검토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구온난화가 농업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제 연구의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최근 20-30년의 통계자료를 이용해서 실증분석해보면, 평균 기온이 일정 이상 상승하면 작물의 생산이 줄어드는 것이 관측됩니다. 이를 토대로 많은 연구들은 향후 지구온난화가 지속될 때, 농업생산이 현저히 줄어든 것으로 전망해왔습니다. 그러나 이 같은 예측은 기후변화에 대한 인류의 기술적 적응(technological adaptation)을 간과하고 있습니다. 19세기 말에는 평균 기온이 높은 지역의 농업생산이 낮았지만, 20세기 들어 고온에 적합한 새로운 농업기술과 품종의 보급(즉 기술적 적응)을 통해 이 지역의 농업생산성은 지난 1세기 동안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따라서 지구온난화에 대한 기술적 적응 가능성을 고려한다면, 지구온난화의 부정적인 영향은 최근 보고된 수준보다 작을 수 있습니다. 결국 인류 경험을 좀 더 장기적인 관점에서 살펴볼 때, 미래 예측과 효율적 자원배분에 대한 시사점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경제사는 최신 자료로 해결하기 어려운 실증연구의 한계(예: 내생성의 문제 등)를 창의적으로 극복할 수 있는 역사적인 사건이나 이벤트를 제공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전에는 아무도 들춰보지 않던 역사적 사건과 사료들이 새롭게 주목을 받기도 하고, 더 나아가 과학적인 방법을 적용하여 새로운 사료들을 만들어 내기도 합니다. 이런 까닭에 최근 경제사 연구의 관심과 저변은 더욱 확대되고, '현재와 과거의 끊임없는 대화'가 더욱 가능하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연구에 대한 이야기를 한껏 늘어놓았지만, 저는 대학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기능이 제대로 발휘되려면 강의와 논문지도를 통한 학생과 교수의 활발한 교류가 기본이 되어야 합니다. 지난 학기 강의실에서 학부생들을 만나고 'R-squared'라는 독서·연구 모임을 통해 대학원생들을 만나면서 한 가지 알게 된 것이 있었습니다. 흔히 요즘 학생들은 학점과 스펙에 치중하고 창의성이 부족하다고들 합니다. 하지만 제가 만나본 많은 학생들은 톡톡 튀는 창의적인 생각이 있었고, 사회와 세계에 대한 열정이 넘쳐났습니다. 오히려 지금의 교육여건이 이들의 창의성과 열정을 잠재우고 있지 않나 반문하게 되었습니다. 교육자로서 제 의무는 학생들의 잠재력을 깨우고 창의적인 생각을 실천에 옮길 수 있도록 돕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마음으로 학생들과 함께 할 것을 다짐해 봅니다.

끝으로 경제학부 교수님들과 학생들의 따뜻한 환영에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앞으로 경제학부의 일원으로 학부 발전의 밑거름이 되기를 희망하겠습니다.

〈학력 및 주요 경력〉

- 서울대학교 경제학 학사, 석사 (2000, 2002)
- 시카고대학교 경제학 박사 (2007)
- 시카고대학교 인구경제학센터 선임연구원 (2007-2009)
- 서강대학교 경제학부 조교수, 부교수 (2009-2016)
-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부교수 (2016-현재)

신임 박웅용 교수 인사말



박웅용 교수

안녕하세요. 동문 선배님들과 학부 및 대학원 학생들, 그리고 교수님들께 인사드립니다. 저는 올해 3월부터 경제학부에 조교수로 부임한 박웅용입니다. 저는 2011년에 미국의 프린스턴 대학교(Princeton University)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하였고, 서울대에 부임하기 전 홍콩대학교(University of Hong Kong)와 미국 일리노이주립대학교 어바나-샴페인(University of Illinois at Urbana-Champaign)에서 재직하였습니다. 주요 연구 분야는 국제금융 및 거시경제학입니다. 지금까지 학부생과 대학원생들에게 거시경제학과 실증분석을 위한 계량방법론, 그리고 계량경제학들을 강의하였습니다.

저의 연구분야를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국제금융 및 거시경제학의 여러 주제 특히 통화 및 재정 정책에 대한 실증분석과, 그러한 실증분석을 위한 계량경제학적 방법론에 대한 연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거시경제학 및 관련 분야에서는 2000년대 들어서 실증분석 방법론과 구조적 거시모형의 발전에 힘입어 실증분석이 과거 어느때보다 활발히 - 여러 주제에 대해 다양한 자료를 가지고 - 이루어지고 있으며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먼저 실증분석 방법론의 발전으로 비교적 큰 규모의 구조적 거시모형을 시계열 자료를 이용하여 직접 추정하고 검정하며, 역사실적 분석(counterfactual analysis)을 포함한 여러 유용한 분석을 하는 것이 가능해졌습니다. 분석 방법론의 발전에 있어 핵심은 컴퓨터에 기반한 계산능력의 비약적인 향상에 따라 적용 가능해진 베이지언 접근법(Bayesian approach)입니다. 그 의미는 단순히 분석기술의 발전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196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거시경제학 실증분석 특히 통화 및 재정 정책에 대한 실증연구는 경제의 각 부문을 대표하는 개별회귀식으로 구성된 대규모 거시계량모형(large-scale macroeconometric models)을 이용하여 이루어 졌습니다. 그러나 1970년대 들어 나타난 합리적 기대가설(rational expectations hypothesis)에 따르면, 이러한 대규모 거시계량모형은 정책 변화에 따른 경제 주체들의 기대의 변화를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기 때문에 정책의 효과를 제대로 추정할 수 없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그에 반해 구조적 거시모형은 개별 경제 주체들의 기대에 기반한 합리적 의사결정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기대가 어떻게 형성되는지 설명할 수 있고 따라서 정책 변화의 효과를 올바르게 분석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과거에는 간단한 경우를 제외하고 현실적인 규모의 모형을 실제 자료에 기반하여 추정하고 검정하는 것이 불가능했으나, 베이지언 접근법의 발전에 따라 그것이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그 결과 경제학 이론과 실제 자료 모두에 기반하여 정책 효과 및 전망을 일관되게 분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에 더해 베이지언 접근법은 민간 부문의 경제적 의사결정과정 뿐만 아니라 공공 부문의 정책 결정과정까지 포괄하는 확률적 모형을 구축하고 체계적으로 정책 변화를 분석하는데 유리한 개념적 틀을 제공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구조적 거시모형의 발전이 큰 역할을 하였습니다. 합리적 기대가설의 도입 이후, 거시경제학에서는 개별 경제 주체의 합리적 의사결정과 생산성 변동에 따른 경기 변동 이론에 기초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졌습니다. 1980년대 후반부터는 이러한 실물 경기 변동 거시모형에 가격 및 임금 경직성을 도입하여 현실의 인플레이션 동학을 설명할 수 있고 통화정책의 효과를 분석할 수 있는 뉴케인지언 모형(New Keynesian models)이 등장하여 발전하였습니다. 뉴케인지언 모형은 2000년대 들어 주요 거시 시계열 자료의 동학을 적절히 설명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경기 전망 능력도 일반적으로 비교 준거로 사용되는 벡터자기회귀모형(vector autoregressions, VAR)에 필적할 만한 수준까지 도달하였습니다. 학계에서 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의 중앙은행에서는 이제 베이지언 접근법을 적용하여 추정된 뉴케인지언 모형을 일상적인 정책 효과 분석 및 전망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뉴케인지언 모형은 아직 많은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소 비현실적인 합리적 기대 가설의 극복, 현실적인 금융 부문의 도입, 그리고 경제 주체들의 비용질성 하중 등이 몇 가지 대표적인 과제입니다. 앞으로 실증분석을 통해 얻어지는 결과가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고 이론을 개선하는데 유용하게 쓰이리라 기대합니다.

구조적 거시모형에 기반하지 않은 실증분석 방법론도 상당히 발전했습니다. 특히 중요한 분석 도구는 구조적 벡터자기회귀모형(structural VAR, SVAR)인데, SVAR을 이용하면 특정한 제약조건을 이용한 식별(identification) 과정을 통해 시계열 자료로부터 인과 관계(causal relationship)를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SVAR은 구조적 거시모형과 달리 오류의 가능성이 있는 경제학 이론과 가정에 상대적으로 덜 제약되어 있기 때문에 거시적 구조모형과 상호 보완 관계에 있습니다. SVAR은 처음 제안된 이후 다양한 식별 방법과 추정 방법이 개발되면서 발전하여, 지금은 거시경제학의 실증분석과 정책 효과 분석을 위한 중요한 도구로 자리매김 하였습니다. 그 외에도 다양한 계량경제학 모형들이 개발되어 오늘날 거시경제학과 관련 분야에서 사용되고 있으며, 거시경제학자들이 새로운 시각으로 자료를 분석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개별 경제 주체들의 행동의 결과를 기록한 방대한 미시 자료를 이용하여 거시경제학적 질문을 분석하려는 시도도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제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주제는 국제적 거시 및 금융 요인들의 변동이 한국을 포함한 신흥개발국에 미치는 영향과 신흥개발국들의 정책적 대응입니다. 예를 들어, 2008년 금융위기 심화에 직면하여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은행은 전례를 찾을 수 없는 비전통적인 통화 정책을 사용하여 추가적인 경기 침체를 막고 경기를 부양하고자 하였는데, 이러한 정책은 국제적으로 특히 신흥개발국들에 심대한 파급효과를 가졌습니다. 저는 이 문제에 단계적으로 접근을 해서, 먼저 그 효과를 실증적으로 추정하고, 개별 신흥국가별로 효과에 어떤 차이들이 있으며 그 차이들은 어떤 이유로 나타나는지 분석하고, 그리고 신흥개발국들의 바람직한 정책적 대응은 어떠한 것인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은 대외 개방성이 커서 대외 충격에 취약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저의 연구가 한국이 대외 충격에 대처하고 대비하는데 보탬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부임 첫 학기에 대학원 거시경제학을 강의하면서 배움에 대한 열의에 찬 우수한 학생들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늘 긴장하여 강의 준비를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즐거웠습니다. 새로운 직장으로 옮긴데 더해 오랜만에 한국으로 돌아와 제가 떠나 있던 동안 달라진 문화와 환경에도 적응을 해야했던 저를 따듯이 맞아주시고 조인을 아끼지 않으신 학부 교수님들 덕분에 순조로이 첫 학기를 마칠 수 있었습니다. 아직 학교나 학부의 규정이나 사정에 밝지 못한 저를 많이 도와주신 학부사무실과 조교실의 직원들과 조교들에게도 감사함을 전합니다.

〈학력 및 주요 경력〉

- 서울대학교 경제학 학사 (2000)
- 서울대학교 경제학 석사 (2005)
- Princeton University 경제학 박사 (2011)
- University of Hong Kong 조교수 (2011-2014)
- University of Illinois at Urbana-Champaign 조교수 (2014-2016)
-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조교수 (2016-현재)

부적절한 이름을 거부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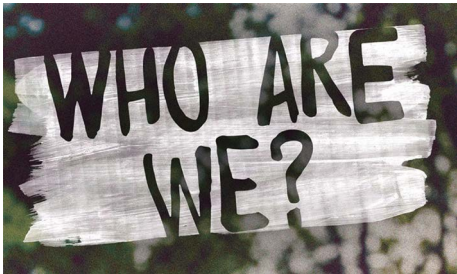
“너에게 붙여진 이름은 알아도 네가 가진 이름은 알지 못한다.”
- 주제 사라마구, 『이름 없는 자들의 도시 Todos os nomes』 -



김우성 (학부 11학번)

이름을 찾는 일은 정체성을 찾는 기나긴 여정의 시작이자 종착역이다. 인간은 서로를 맞는 이름으로 부르고, 불리길 원한다. 사회적 관계 형성 과정에서 이름 짓기는 가장 상징적이면서 압축적인 의미부여 과정이다. 시인 김춘수는 〈꽃〉에서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그는 다만/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그는 나에게로 와서/꽃이 되었다”며 이름 부르기를 담백하고 아름다운 말로 노래했다.

개인에게만 이름이 필요한 것이 아니다. 크고 작은 조직, 넓게는 사회 구성원 모두를 하나로 묶을 수 있는 이름도 필요하다. 물론 적당한 이름을 찾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다. 아주 오랫동안 정체성을 나타내는 이름을 가진다는 것은 꽤나 사치스러운 일이었다. 과거에도 필요에 따라 지배자가 피지배자를 지칭하는 단어가 존재했다. 하지만 그런 이름은 구성원들의 정체성을 잘 담아내는 그릇이 되지 못했다. 차라리 물건에게 붙이는 인식표에 가까웠다.



시간이 흐르고, 사람들이 자신들을 무엇이라고 부를지 고민하기 시작했다. 그 고민은 우리가 알고 있는 수많은 이름들로 흔적을 남겼다. 구성원들은 백성, 신민, 국민, 인민, 대중, 시민, 민족, 다중 등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고 불렸다. 오늘날, 수많은 이름 중 어떤 이름이 더 좋고, 더 정당하다는 주장을 펼치기 위해 이 글을 쓰는 것은 아니다. 다만 어떤 기준으로 보아도 수용할 수 없는 매우 부적절한 이름이 등장했기에 그 심각성에 대해 말하지 않을 수 없었다.

지난 7월 7일 저녁 경향신문사 기자들과의 회식자리에서 교육부 정책기획관이던 A씨는 작년에 상영되었던 영화 〈내부자들〉의 대사를 인용하며 “민중은 개·돼지로 보고 먹고살게만 해주면 된다”고 주장했다. 그가 말하는 민중은 대한민국 사회 99%에 속하는 사람들로 우리 사회 구성원 절대다수이다. 이 주장은 “출발선상이 다른 것이 현실이니 신분제를 공고화시켜야 한다”는 이야기와 연결되어 정말 영화와 같은 한 장면을 만들어냈다. 해당 신문사에서 당시 정황을 상세

하게 묘사하는 기사를 신지 않았으면 듣고도 믿기 힘든 수준의 발언이다.

필자는 이 주장이 한 고위 공직자가 과음한 상태에서 내뱉은 실언으로 가볍게 넘길 일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의 주장에 불쾌했다면 왜 불쾌할 수밖에 없는지 곱씹어 생각해보고, 나아가 우리는 스스로를 어떻게 이름 붙일 것인지 고민해야 한다. 미리 밝히건대, 이 질문의 답을 찾는 과정은 개인주의와 인권, 민주주의와 정치참여, 사회·경제적 불평등과 계급이라는, 우리 사회의 굵직하고 무거운 주제들을 관통할 수밖에 없다.

우선, 위의 발언은 사회 구성원 대다수를 ‘개·돼지’같은 존재로 묘사함으로써 개인주의 사상과 인권에 근거한 모든 사회적 합의를 송두리째 부정하고 있다. 개인주의는 모든 인간이 전통의 관습에서 벗어나 자신이 소망하는 바를 추구하며 살 권리를 인정함으로써 성립한다. 인권은 이러한 개인의 가치 추구를 보장하기 위한 울타리로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인간의 필요가 가축과 마찬가지로 ‘먹고사는’ 기본적인 욕구의 충족 뿐이라면, 우리는 스스로의 물질적 재생산을 넘어서는 그 어떤 것도 상상할 수 없는 존재가 된다. 공리주의 사상가이자 경제학자였던 존 스튜어트 밀이 “배부른 돼지가 돼기보다는 배고픈 인간이 되는 것이 낫고, 만족스러운 바보가 돼기보다는 불만족스러운 소크라테스가 되는 것이 낫다”고 말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간단히 말해서, 이 발언은 사회 구성원 99%의 인격에 대한 공개적 모독이다.

본능에만 충실한 존재로 규정당하면서 부인된 수많은 권리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정치적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이자 가능성이다. 일반적으로 사회 구성원들은, 비록 행정부 구성원 모두를 선출하는데 관여한 것은 아니지만, 정부 기관 관계자들이 자신들은 일반인들과는 다르다는 우월의식 속에서 시혜적인 관점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상황을 기대하지 않는다. 그러나 문제가 된 발언이 내포하는 바는 단순한 우월 의식을 넘어선다. 다수의 의견이 존중받을 가치도, 필요도 없다는 반민주주의적인 생각이다. 아마도 자신이 정부 부처에서 업무를 담당하는 것은 다수의 이익을 위해서라는 기본적인 개념도 부재한 것 같다. 그에게 공직은 출세의 수단일 뿐이며, 정책의 대상이 되는 시민들은 군말 없이 따라오면 그만인 존재이다. 만약 불만이 있다면 잠깐 환심을 사서 무마하면 그만이다. 이러한 설정 속에서 합리적 의사소통에 의한 정치 참여가 들어설 틈은 없다. 고대 로마 시인 유베날리스는 “뺑과 서커스만 준다면 그들(대중)은 절대 듣고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고 비꼬았다. A씨가 생각하는 99%의 모습이 눈앞의 당근을 받으며 황제의 폭정이라는 채찍을 견디도록 강요받았던 로마인들과 얼마나 다를까?

신분제를 공고히 하는 것이 현실적이라는 주장도 마찬가지이다. 공식적인 신분제도는 철폐되었지만 사회·경제적 배경에 따라 사회 구성원들이 위치지어진다는 것은 적절한 현실 인식이다. 오히려 그런 구분은 존재하지 않으며 노력하면 뭘든지 할 수 있다는 말이 더 위선적으로 들린다. 그가 지적한대로 현대 사회 구성원들이 출발하는 선은 모두 다르다. 그리고 현실의 벽이 높아질수록 더 많은 이들이 힘겨워하고 있다. 상식적으로 정부 관료에게 시민들이 요구하는 역할은 이 상황을 어떻게 개선할 수 있을지 고민하고 대책을 내놓는 일이다. 현실을 인정하고 분수에 맞게 살라는 훈계는 어떤 위로도, 해결책도 주지 못한다. 사뭇 보수주의적인 입장에서 사회 불평등이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사회 발전을 가로막아 사회 통합을 저해하기 때문에 개선이 필요하다고 충분히 주장할 수 있다. 하지만 오히려 더욱 명시적인 신분사회로 돌아가는 것이 낫다는 그의 주장은 너무 역행적이라 놀라울 따름이다.

그의 망언은 한 사람의 몰상식함이나 무지에서 나온 것이 아닐 것이다. 본인을 비롯한 일부 기득권의 사회 구성원들에 대한 인식을 다소 거칠고 여과 없이 보여주었을 뿐이다. 문제의 A씨에게 적당한 징계를 내리는 것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이 주장에 대해, 이런 말을 서슴없이 내뱉을 수 있는 사회 분위기에 대해 99%의 시민들은 마땅히 분노해야 한다. 스스로의 정체성과 존재에 대한 심각한 모독을 보고 지나쳐서는 안 된다. 우리 사회가 워낙 다사다난하기 때문인지 몰라도 우리는 모든 것을 너무 쉽게 잊는다. 하지만 이번 일은 쉽게 잊지 말아야 한다. 분노하는 것에서 멈추지 말고 우리의 정당한 이름을 찾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누구든 붙잡고 이런 주장에 동의할 수 있겠는지, 불쾌한 이름을 떨쳐버리기 위해 우리는 무엇부터 하면 좋을지 이야기를 나누어야 한다. 그의 발언은 가장 긍정적으로 평가해서, 매우 구시대적인 발상이다. 하지만 그토록 낡은 술을 담을 부대는 더 이상 우리 사회에 존재하지 않는다. 그 누구도 수동적인 피지배자로 남을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잘못된 이름표를 달고 살아갈 것인가?



LES(Law & Economics Society)

1. 동아리 소개

법경제학 연구회 LES는 법경제학을 공부하는 학술동아리입니다. 법경제학은 시카고대학교에서 창안되어 현실에서 발생하는 법률적 문제를 경제학적 효율성의 관점에서 해결하고자 하는 학문입니다. 저희 동아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공부하면서 독과점 시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경쟁 제한적 상황과 그와 관련하여 산업조직론에서 다루어지는 경제학적 분석 방법을 공부합니다. 그리고 저희 LES는 법경제학에 대한 연구 및 정기적인 세미나와 함께 LES를 거쳐간 선배님들, 현재 동아리에서 활동하고 있는 회원들의 모임인 LESian간의 친목도모와 함께 다양한 동아리 활동도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LES는 2005년 8월에 창립되어 2005년 9월에 1기 회원을 모집하면서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하였습니다. 매년 저희 동아리가 하는 주된 활동 중 하나는 모의 공정거래위원회 대회입니다. 이 대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법경제학을 공부하던 모임이 발전되어 현재의 LES가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LES는 대회를 준비하는 기간을 고려하여 1년에 1회 신입회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현재 2015년 9월에 모집한 13기 회원들이 활동하고 있으며, 2016년 9월에 14기 회원들을 모집할 계획입니다.

2. 지도교수님 소개



LES의 지도교수님은 경제학부 이상승 교수님입니다. 이상승 교수님께서서는 저희 LESian과 다양한 활동을 함께 해주시며 동아리를 이끌어주고 계십니다. 이상승 교수님께서서는 법경제학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부족한 점을 지도해주시는 뿐만 아니라, LESian들과 지속적인 유대관계를 통해 멘토로서의 역할도 해주십니다. 이렇게 지도교수님과의 가까운 관계는 저희 LES가 자랑하는 장점 중 하나입니다. 현재 활동하고 있는 LES 13기 역시 동아리 활동을 하며 궁금한 점이 있거나 동아리 활동에 어려운 점이 있을 때 교수님께 찾아가 많은 배움과 조언을 받고 있습니다.

담당 강의 : 산업조직론, 경제수학(학부)
산업조직론연구,
산업조직론특수연구(대학원)

3. 동아리 활동

(1) 법경제학 세미나

저희 LES는 정기적으로 가지는 세미나를



통해 법경제학에서 다루는 몇 가지 이슈에 관하여 공부합니다. 저희가 세미나에서 주로 다루는 내용은 국내 공정거래위원회 및 해외 경쟁당국에서 다루는 경쟁법 관련 사안들입니다. 저희는 세미나를 통해 각 사안과 관련된 논문 및 심결례를 바탕으로 경쟁법에서 중요한 쟁점과 이론들을 공부합니다. 세미나에서 공부한 내용들은 저희 동아리가 이후 준비할 모의 공정거래위원회 경연대회를 준비하는 밑바탕이 됩니다.

(2) 모의 공정거래위원회 경연대회 참가

모의 공정거래위원회 경연대회는 현재 공정거래위원회와 공정거래연합회가 공동주최하고 있는 대회이며 저희가 법경제학 세미나를 통해 공부한 법경제학을 활용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저희는 이 대회에서 경연을 통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업무와 관련된 법경제학 이슈를 직접 찾아 발표하고 공정위의 심사과정을 선보이게 됩니다. 이 대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저희는 기존의 국내의 판결례를 깊이 공부하고 분석하며, 이를 기반으로 하여 현실에서 벌어질 수 있는 경쟁제한적 사례를 직접 탐색해봅니다. 탐색된 사례들 중 현실성과 시의성이 있는 이슈를 주제로 삼아 대회를 준비하는 과정은 저희가 공부한 내용을 가상의 사례에 적용해보는 기회를 통해 법경제학에 대한 이해를 깊게 해주는 기회입니다. 또한 대회를 준비하며 오랜 시간동안 LESian과 동고동락하며 서로에 대한 애정과 신뢰가 깊어지는 시간은 저희 LES에서 경험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경험입니다. 저희는 2003년부터 대회에 참가하였으며, 2009년 이후로 저희 동아리가 출전한 주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연도	주 제
2009	(주)에이나비의 재판매각가격유지행위 등에 관한 건
2010	(주)인투더파크의 시장지배적지위남용행위 및 불공정거래행위에 관한 건
2011	(주)해리츠 금융지주의 기업결합 제한규정 및 신고규정 위반행위에 관한 건
2012	(주)대한거래소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에 대한 건
2013	(주)코리안지리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건
2014	(주)이바이코리아와 (주)케이씨미시스의 기업결합제한규정 위반 행위 건
2015	(주)지플릭스의 시장지배적 지위남용행위 및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건

저희 LES 13기는 현재 “(주)에스케이텔레콤의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행위에 대한 건”을 주제로 제 15회 모의공정거래위원회 경연대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매 대회처럼 이번 대회도 동아리 회원들 모두 열정을 가지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매 대회에서 LES의 최선을 다하는 자세는 좋은 성과로 나타났습니다.

연도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수상	우수상	대상	우수상	대상	장려상	대상	대상
순위	2위	1위	2위	1위	3위	1위	1위

(3) 해외 대학 교류 세미나



LES의 주요 동아리 활동 중 하나는 해외 대학과의 교류 세미나입니다. 매해 겨울 저희는 해외의 경쟁법적 이슈를 다루면서 보다 넓은 시각으로 경쟁법을 공부하기 위해 중국과 일본 등 해외 국가를 방문하여 해외 학생들과의 세미나를 가지고 있습니다. LES는 작년까지 중국 칭화대 경제학부 동아리 EATH와 총 19회의 교류 세미나를 가졌으며, 올해 2월에는 일본 와세다 대학 법학부 학생들과 교류 세미나를 가졌습니다. LES는 해외 학생들과의 경제학, 법학 관련 세미나와 토론뿐만 아니라 각국을 방문할 때마다 현지탐방을 하며 현지 학생들과의 유대관계를 다집니다. 올해 2월 LESian들은 일본 도쿄에 머물면서 와세다대학 법학과 학생들과 돈독한 유대관계를 가지게 되었으며, 단순한 학술교류에 그치지 않고 보다 폭넓은 교류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해외 교류 세미나는 LES의 또 다른 매력적인 활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4) 기타 행사

저희 LES는 모의공정거래위원회 대회와 해외 교류 세미나 뿐만 아니라, 홈커밍데이, 체육대회와 같은 큰 행사부터 교수님과의 등산이나 신입생 환영회, 회원들끼리의 소풍 등 소규모 행사까지 1년 동안 다양한 행사를 진행하며 활발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열정적인 활동을 통해 교수님을 비롯한 LESian과의 친목을 도모하고 이를 통해 보람을 느낄 수 있다는 점도 LES의 장점 중 하나입니다.

BK21플러스 사업단 소식

우리 경제학부는 2013년 하반기부터 21세기 지식기반사회대비 고등인력양성사업: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석·박사 급 창의인재 양성(BRAIN KOREA 21 PLUS)의 인문사회분야 사업단으로 선정되어 『한국 경제의 미래를 선도하는 세계적 경제전문가 양성 교육연구사업단』이라는 명칭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지난 2년간(2013년9월1일~2015년8월31일)의 중간평가 결과 사회과학분야(경제/경영, 전국단위) 최우수 사업단으로 평가 받았다.

2016년도 상반기 학술활동

BK21플러스 사업단은 2016년도 상반기에는 다음과 같은 학술활동을 지원하였다.

- ▶ BK21플러스/김태성기념세미나 27회
- ▶ 경제사 워크숍 8회
- ▶ BK21플러스 Brown Bag lunch 세미나 6회
- ▶ BK21플러스/IER Public Seminar 3회
- ▶ 응용계량경제학 워크숍 5회
- ▶ 실험사회과학모임 3회
- ▶ 단기해외연수지원 5회
- ▶ BK21플러스 특별강연 1회

BK21플러스/김태성 기념세미나

故김태성 교수를 기념하고 경제학부 BK21플러스 사업의 일환으로 국내외의 저명한 경제학자들을 초청하여 세미나를 개최하고 있다.

이진혁 (고려대)

Revisiting the Nested Fixed-Point Algorithm in BLP Random Coefficients Demand Estimation

Caroline Thomas (University of Texas at Austin)
Career Concerns and Policy Intransigence-A Dynamic Signalling Model

Lawrence Christiano (Northwestern University)
Financialization and Commodity Markets

Kamhon Kan (Academia Sinica)
The Impact of Schooling on Morbidity

이은희 (Yale University)
Trade, Inequality, and the Endogenous Sorting of Heterogeneous Workers

신용철 (York University)
The Threshold Autoregressive Distributed Lag Model

Takeshi Amemiya (Stanford University)
Ancient Greece vs. Ancient China

Martin Kenney (UC Davis)
The Rise of the Platform Economy

Ahmet Alkan (Sabanci University)
Pairing Games and Markets

윤참나 (City University of New York)
Estimating Dynamic Games of Electoral Competition to Evaluate Term Limits in U.S. Gubernatorial Elections

Anthony Wray (Hitotsubashi University)
Childhood Health and Long-run Economic Opportunity in Victorian England

고유미 (Singapore Management University)
Universalism and the Value of Political Power

Wing Suen (University of Hong Kong)
Competing for Attention in the News Media Market

Randall Morck (University of Alberta)
American Chaebols

John Rogers (Federal Reserve Board)
Monetary Policy Uncertainty

Inés Macho Stadler (Universitat Autònoma de Barcelona)
Endogenous Matching in University Industry Collaboration: Theory and Empirical Evidence from the UK

Jesús David Pérez Castrillo (Universitat Autònoma de Barcelona)
On the Manipulability of Competitive Equilibrium Rules in Many-to-Many Buyer Seller Markets

Doh-Shin Jeon (Toulouse School of Economics)
Second-Degree Price Discrimination by a Two-Sided Monopoly Platform

Tang Srisuma (Surrey University)
Estimation of Private Value Densities in Ascending Auctions and Generalized Competing Risks Models

Maurits Dolmans (Cleary Gottlieb)
Antitrust and Innovation in the Digital Economy: Intervene and Regulate, or Let the Market Decide?

장성연 (Xiamen University)
A New Test for Asset Return Predictability

최환식 (Binghamton University)
The Credit Card Debt Puzzle and Non-cognitive Ability

Frank Lewis (Queens University)
Transatlantic Wage Gaps and the Migration Decision: Europe-Canada in the 1920s

유동우 (West Virginia University)
Constitutional Bargaining, Eminent Domain, and the Quality of Contemporary African Institutions: A Test of the Incremental Reform Hypothesis

안재빈 (International Monetary Fund)
Understanding Trade Finance: Theory and Evidence from Transaction-level Data

Andrew Foster (Brown University)
Spillovers, Coordination Failure, and the Consequences of Fragmentation in Rural India

Pol Antràs (Harvard University)
Inequality, Costly Redistribution and Welfare in an Open Economy

경제사 워크숍

이영훈 (서울대), 이상철 (성공회대)
서평모임, 이대근, <귀족재산 연구>

이우연 (성균관대)
戰時期 일본으로 동원된 조선인 炭·鑛夫의 임금과 민족간 격차

정안기 (동아대)
1930년대 조선 공업화와 특수회사 연구: 조선압록

강수력발전(주)의 사례

고 선 (중앙대)

Interracial Differences in School Attendance in the Postbellum U.S.

이창근 (한국개발연구원)

The Role of Industry Leaders in the Rise of North Carolina Cotton Textile Industry in the Early Twentieth Century

선재원 (명맥대)

식민주의의 역사: Index of Possessions and Colonies의 분석과 그 함의, 1000-2015

김성남 (서울대)

창씨 정책에 대한 대응을 통해 본 식민지기 농촌 지역 경제의 구조

권재현 (인천대)

국내 증권산업 변화와 경쟁도 측정

BK21플러스사업단 Brown Bag lunch 세미나

Fetene Bogale (서울대 경제학부)

Foreign Exchange Rate Dynamics and Trade Balance: Empirical Evidence from Eastern Africa

김준엽 (서울대 경제학부)

Estimating CPI-E Bias by Using Engel Curve Method/ 앵겔곡선 방법론을 활용한 고통소비자물가지수의 편익측정

정지영 (서울대 경제학부 BK21플러스 박사후연구원)
Is investors' pessimistic view necessarily detrimental to an issuing firm?

이병윤 (서울대 경제학부)

Action regret avoidance and dynamic portfolio choice

정진용 (서울대 경제학부 BK21플러스사업단)

The Incentive Cost and Risk-Aversion in the Agency Problems

이영임 (서울대 경제학부 BK21플러스사업단)

혼합빈도 GARCH 모형을 이용한 주식시장 변동성 예측

BK21플러스/IER Public Lecture Series

이주호 (KDI국제정책대학원)

한국인의 역량: 실증분석과 개혁과제

이철희 (서울대 경제학부)

부모의 남아선호, 성 역할 태도와 가사분담

Ines Macho-Stadler (University Autònoma de Barcelona)

Moral Hazard: Base Models and Two Extensions

응용계량경제학 워크숍

권혁준 (서울대 경제학부)

Improving Efficiency of On-Campus Housing : An Experimental Study (2002, Yan Chen et al, AER)

허은지 (서울대 경제학부)

The Effect of Marital Sorting on Intergenerational Income Mobility

이상아 (서울대 경제학부)

Multinational and Anti-Sweatshop Activism

학생수상 및 장학금

장학금 수혜 현황

2016년도 1학기 교내 장학금을 통해 경제학부 학부생 777명 중 284명, 대학원생 186명 중 92명이 수혜를 받았다. 기타 교외장학금을 통해서도 학부생 380명, 대학원생 22명이 수혜를 받았다.

2016학년도 향상장학금 수여식

상대향상 재단을 통해 39명의 학부생이 장학금을 전달받았으며, 2016년 2월 25일 프레스센터에서 19명의 학부생을 대상으로 향상장학금을 수여하고 격려했다.

교무 및 학생활동

제70회 전기 학위수여식



서울대학교 제70회 전기 학위수여식이 2월 26일(금) 14시에 종합체육관에서 개최되었다. 경제학부는 이번 학위수여식에서 박사 9명, 석사 21명, 학사 144명(최우등 61명, 우등 60명)을 배출하였다.

2016학년도 경제학부 대학원 후기모집

경제학부는 2016년도 대학원 후기모집을 실시했다. 석사과정은 전공필답고사 성적으로 1차 선발한 후, 면접 및 구술고사를 거쳐 최종 17명의 학생을 선발하였다. 박사과정은 석사과정에서의 연구 성과 및 향후 연구계획 등을 바탕으로 서류평가와 면접 및 구술고사를 통해 총 13명의 학생을 선발하였다.

2016학년도 하계 계절학기 개설

2016년도 하계 계절학기가 6월 21일부터 8월 1일까지 실시되었다. 경제학부는 학생들의 하계계절학기 개설희망교과목 수요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경제학개론', '경제원론1, 2', '미시경제이론', '거시경제이론', '경제사', '경제통계학', '정치경제학입문', '경제수학', '계량경제학' 교과목을 개설하였다.

스승의 날 행사 개최

경제학부는 5월 9일부터 5월 20일까지를 스승의 날 주간으로 잡고 경제학부 서포터즈와 함께 스승의 날 행사 'Meet the Professors'를 개최하였다. 우리 학부는 약 1000여명의 학생과 38명의 교수로 구성되어 있어 평소 자유로운 사제 간의 교류가 힘들다는 의견을 받아들여 이 같은 행사를 가졌다. 이 행사에서 학생들은 담당교수들과 간담회를 가지며 앞으로 지속적인 교류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희망하였다.

Happy Hour 개최



경제학부 대학원 학생들과 교수들의 교류를 위한 행사가 "Happy Hour"란 명칭으로 2016년 6월 3일(금)에 교수회관 잔디밭에서 처음으로 개최되었다. 오후 4시부터 약 3시간 동안 진행된 본 행사에는 100여명(교수 21명, 대학원생 80여명)이 참석하였다. 참석자들은 삼삼오오 모여 준비된 다과와 함께 다양한 주제에 관해 이야기를 나누었다.

조교 인사이드

2016년 2월 정진용 조교가 퇴직하고, 3월에 고중산 조교가 신규 임용되었다. 고중산 조교는 정진용 조교 후임으로 출판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국제화 추진 현황

2016년도 1학기 영어강의개설목록

담당교수	교과목명
박지형	Studies in International Economics
이근	Studies in Corporate Organization and Growth
이지홍	Studies in Microeconomics, Topics in Microeconomics
이철인	Analysis of Public Policies
Elias Sanidas	International Economics
Oyvind Thomassen	Mathematics for Economists, Econometrics
Yves Gueron	Microeconomics

2016학년도 외국인특별전형 후기모집

경제학부는 2016년도 후기 외국인특별전형을 실시하여 서류평가를 통해 11명의 석사과정, 2명의 박사과정 신입생을 선발하였다. 이번 외국인특별전형은 총 31명의 외국인 학생이 지원한 가운데 중국, 몽골,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카자흐스탄, 러시아, 프랑스 국적의 학생이 선발되었다.

버클리대 경제학과 방문수학 프로그램(BESAP) 학생선발

경제학부는 2016년 3월 선발전형을 실시하여 BESAP 참가자로 4명의 학생을 선발하였다. 이 중 1명을 2016년 2학기, 나머지 3명을 2017년 1학기에 파견할 예정이다. BESAP은 미국 명문대학인 캘리포니아 버클리대(UC Berkeley)와 경제학부가 협약을 맺어, 학부 3, 4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들이 버클리대 경제학과와 정규과정에 방문 수학하는 프로그램으로 2009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서울대 발전기금 출연 현황

- 박승구 (동문, Bank of America 메릴린치 한국 대표) 50,000,000원(억식(億植)장학금)
- 차인순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입법심사관) 10,000,000원(故 차병권 명예교수 장학기금)

(10면에서 이어집니다.)

(2010, Ann Harrison et al, AER)

김준엽 (서울대 경제학부)

Exploring the Possibility of Estimating CPI-E Bias by Using Collective Household Model With Engel Curves

홍용기 (서울대 경제학부)

Selection Effect of Finance

실험사회과학모임

최승주 (서울대 경제학부)

행동경제학을 통한 정책 제언, 외국 사례를 중심으로

Chris wikens

Introduction to Otree

이웅익 (서울대 경제학부)

네트워크 하의 전략적 선택

BK21플러스사업단 장단기 연수지원

단기연수지원(논문발표지원)

송상운 (박사과정)

국제학술대회 "61th annual ICSB World Conference"에서 논문 발표

성예지 (박사과정)

국제학술대회 "2016 Australasia Meeting of the Econometric Society"에서 논문 발표

한준희 (박사과정)

국제학술대회 "The Schumpeter Conference 2016"에서 논문 발표

Hunegnaw Fetene Bogale (박사과정)

국제학술대회 "8th Conference on Global Business, Economics, Finance and Banking"에서 논문 발표

정지영 (신진연구인력)

국제학술대회 "World Finance Conference(New York)"에서 논문 발표

BK21플러스 특별강연

BK21Plus Lecture & Q&A by Professor Pol Antràs (Harvard University)

Sequential Value Chains

서울대학교 세계경제최고전략과정(ASP) 안내

서울대학교 경제연구소는 1961년도에 설립되어 50년에 이르는 전통과 역사를 지닌 연구소입니다.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및 경제·경영학 관련 전공 교수 50여 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997년 말 IMF 구제금융을 받게 된 금융위기를 보면서 경제연구소에서는 경제학 부와 더불어 세계 속에서의 한국경제를 이해하고,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전략을 모색하기 위하여 2001년 3월부터 「세계경제최고전략과정」(Advanced Strategy Program for Global Economy : ASP)을 설립,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6년 9월(제32기) 입학생을 모집하는 본 과정은 이미 950명 이상의 동문을 배출한 최고 수준의 교과과정과 강사진을 갖춘 산학협동과정으로서, 경제 분야를

중심으로 국제화된 디지털경제시대에 걸맞는 새로운 전략방향 수립을 위한 지식 습득과 능력 개발을 주요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본 과정을 수료하신 분들은 사회 각계를 대표하는 지도자로서 기업의 최고경영자를 비롯하여, 국가전략을 결정하는 책임 있는 당국자, 금융 및 분야별 전문가 등으로서 국가와 사회 발전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세계경제최고전략과정은 우리나라 정부와 기업이 급변하는 경제 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데에 기여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더욱이 본 과정을 통하여 국가정책방향의 주요 의제들이 논의되는 토론의 장이 만들어 질 수 있도록 저희들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나라 경제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세우는 데 주역을 맡으신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아낌없는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ASP의 특전

1. **과정 수료자에 대한 이수증 수여**: 6개월간에 걸친 과정을 수료한 사람에게 총장 명의의 이수증을 수여합니다.
2. **동창회 조직**: 본 과정 이수자들 간의 상호교류와 학교와의 연계를 위하여 동창회를 구성하여 서울대학교 총동창회에 소속됩니다.
3. **정기간행물 및 시설 등의 이용**: 수강자들은 서울대학교 경제연구소에서 발행되는 정기간행물(경제논집, Seoul Journal of Economics 등)과 자료들을 증정 받으며, 본 연구소의 각종 시설(도서관, 세미나실 등)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4. **각종 세미나 및 행사 참여**: 본 과정 수강자들은 경제연구소 및 ASP총동창회가 주최하는 각종 세미나 및 행사에 우선적으로 참가할 수 있습니다. 경제연구소는 주례발표회(학기 중, 매주 수요일 12시), SJE 세미나 및 저명교수 초청강연 등 다양한 행사를 하고 있으며, ASP총동창회에서는 조찬세미나, 하계 해외연수 등 다양한 행사를 주관하고 있습니다.

ASP 입학안내

- ① **모집인원**: 40명 내외
- ② **입학자격**: 1) 대기업의 임원 2) 중소기업의 대표
3) 주요기관의 기관장급 간부 4) 금융기관의 간부
5) 입법·사법·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
6) 기타 이에 준하는 인사
- ③ **전형방법**: 1차 서류전형, 2차 면접(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통지)
- ④ **모집횟수**: 연2회(봄학기 모집: 1~2월, 가을학기 모집: 7~8월)
- ⑤ **이수요건**: 강의 출석률이 70% 이상일 것
- ⑥ **모집안내** - 전화: (02)880-5432 - Fax: (02)875-9867
- e-mail: asp@snu.ac.kr - Home Page: http://ier.snu.ac.kr
- 주소: 우)08826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로 1
서울대학교 경제연구소 세계경제최고전략과정(16동 523호)

ASP 31기 회원명단

- | | |
|----------------------------------|---------------------------------|
| 1. 강원구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위원회 사무국장 | 16. 심중국 삼성생명 부사장 |
| 2. 공상훈 서울서부지방검찰청 검사장 | 17. 오영석 금융감독원 기획조정국장 |
| 3. 권순호 HDC아이스서비스 상무(인테리어조경사업본부장) | 18. 오윤진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상무 |
| 4. 김대복 신용보증기금 테헤란로지점장 | 19. 우광혁 NH농협은행 수탁업무부장 |
| 5. 김대희 KBS한국방송 전략기획본부장 | 20. 이미영 한국무역보험공사 중소중견기업 중부지역본부장 |
| 6. 민경세 세일양행 대표 | 21. 이일영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부장판사 |
| 7. 박경국 삼성화재 상무(강남사업부장) | 22. 이재호 한국산업은행 자금시장본부장 |
| 8. 박기석 한국감정원 서울동부지사장 | 23. 이현이 INCUS 대표이사 |
| 9. 박성태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리스크관리센터장 | 24. 전장수 한국수출입은행 부장(경협지원실장) |
| 10. 박효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국제협력과 사무관 | 25. 정재욱 한국가스공사 부장(인천지역본부) |
| 11. 백준봉 KT 상무(경제경영연구소 대외정책연구담당) | 26. 정진섭 KB국민은행 경기남지역 영업그룹 대표 |
| 12. 서치길 BK기업은행 경영관리부장 | 27. 조용준 하나금융투자 전무(리서치센터장) |
| 13. 서현주 신한은행 부행장(리테일부문장) | 28. 조원석 한국전력공사 경기북부지역본부장 |
| 14. 송병선 대통령직속 지역발전위원회 지역발전기획단장 | 29. 지경환 장인제(주) 대표이사 |
| 15. 신영호 공정거래위원회 국장 | 30. 홍병기 중앙일보 선데이제작담당 기획에디터 |



〈ASP 31기 해외세미나 기념사진〉

인적사항 수정이 필요한 동문 또는 알리고 싶은 소식 있는 동문께서는 소식지 편집조교에게 이메일로 말씀해 주십시오. 인적사항 수정의 경우 새 정보로 변경하고, 알리고 싶은 소식의 경우 다음호에 게재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출판된 경제학부 소식지는 경제학부 홈페이지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E-mail: joongsan@snu.ac.kr 전화: 02-880-6359 홈페이지: http://econ.snu.ac.kr